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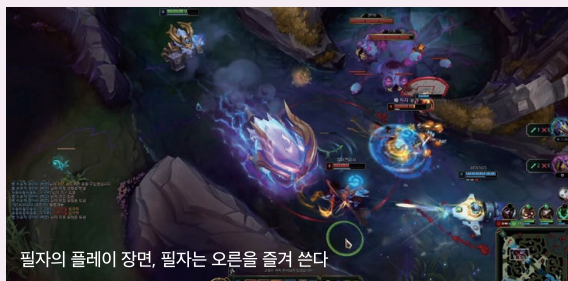
글. 김상윤 SBS A&T 방송기술팀 사원

LEAGUE OF LEGENDS

리그오브레전드 로고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 줄여서 LoL, 롤이라는 별칭으로 많이 불리는 게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게임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모를 리가 없는 게임이겠죠. 이 게임을 들어보지 못해도 페이커(Faker)라는 프로게이머의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되며 외신에서는 e스포츠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소개된다고 합니다. 그 화제의 인물이 몸담고 있는 게임이 바로 롤이죠.

롤은 대한민국에서 2011년에 정식 출시되었으며 15년이 지나감에도 여전히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2011년에 수능을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던 게임인데, 그 세월만큼 여전히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롤은 하는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재미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지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공



필자의 플레이 장면, 필자는 오른을 즐겨 쓴다

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번 글에서는 '방송과기술'을 애독하는 다양한 독자들이 롤은 어떤 게임인지 가볍게 짚어 먹어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롤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

롤에서 이기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적의 넥서스를 파괴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군 5명, 적군 5명 총 10명 이서 이 넥서스를 파괴하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게임이죠. 플레이어는 약 140개가 되는 캐릭터 중 하나를 골라 플레이합니다. 롤에서는 이 캐릭터를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플레이어는 이 챔피언을 조종하여 잘 먹고, 잘 싸워 전장에서 승리하는 최종목표를 가지고 게임에 임하게 됩니다.

롤의 전장 - 소환사의 협곡



소환사의 협곡 사진 / 출처 : 필모라

게임을 시작할 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반겨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롤에서의 전장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협곡에는 총 3개의 공격로와 그 사이에 정글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5명의 포지션을 부를 때 각각 담당하는 공격로에 맞춰 탑, 정글, 미드라고 부르는데 바텀에는 특이하게 원거리 딜러와 서포터가 2명에서 갑니다. 둘을 합쳐 봇듀오 또는 바텀 듀오라고 불립니다. 정리하면 탑, 정글, 미드, 원거리 딜러, 서포터 총 5명이 힘을 합쳐 플레이합니다.

각 공격로에는 방어하고 있는 3개의 포탑이 존재합니다. 이 3개의 포탑을 지나면 진영에 3개의 억제기와 넥서스 바로 앞을 지키고 있는 2개의 포탑이 있는데요. 1개 이상의 억제기와 2개의 포탑을 제거한 후에야 넥서스를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롤의 기본 인터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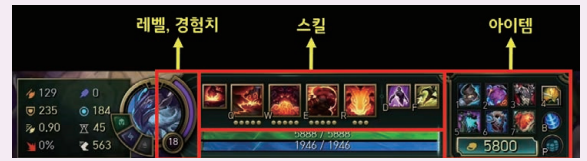
룬



룬을 선택하는 과정

마치 야구에서 짧은 배트를 드냐 긴 배트를 드냐에 따라 단거리 타격과 장거리 타격을 하는 어느 정도 노림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처럼 롤에서도 이런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시

스템이 존재합니다. 게임 전 어떤 효과를 가질지 선택하는 시스템을 룬이라고 합니다. 이 룬은 핵심 룬과 보조 룬으로 나뉘어 총 6개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3가지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파편이 존재합니다.



롤 인터페이스

레벨

챔피언은 경험치를 쌓아 최대 18레벨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격 수치 또는 방어 수치가 올라가죠. 즉 레벨이 오를수록 더욱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스킬

그뿐만 아니라 레벨이 오를수록 더 강한 스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스킬은 총 3개의 기본 스킬과 1개의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킬은 1레벨부터 레벨이 오를 때마다 한 개씩 총 5번까지 자유롭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기는 6, 11, 16레벨에 총 3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챔피언은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패시브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2개의 모든 챔피언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소환사 주문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챔피언은 1개의 패시브 스킬과 4개의 스킬, 2개의 주문으로 총 7개의 특성으로 전장에 임하죠. 스킬은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재사용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쿨타임이라고 합니다.

아이템

아이템을 통해 더 강력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최대 6개까지 지닐 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골드를 모아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성장 방법

챔피언이 성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미니언 사냥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니언은 넥서스를 중심으로 3개의 공격로를 향해 가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미니 몬스터입니다. 이 미니언을 챔피언이 마지막 타격을 쳐서 죽인다면 소량의 골



미니 몬스터, 미니언



쳐쳐 시 이로운 효과를 주는 드래곤

드와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막타를 치지 않아도 죽은 미니언 근처에 있다면 경험치 획득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개의 공격로를 담당하지 않는 정글은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정글은 각 정글에 있는 몬스터를 사냥하여 골드와 경험치를 얻습니다. 몬스터 종류에 따라서 이로운 효과를 줍니다.

또한 상대 챔피언을 잡는 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니언과 같은 방식으로 막타를 칠 때 경험치와 골드를 얻게 되는데, 아군의 챔피언과 함께 잡는다면 막타를 치지 않는 챔피언은 어시스트라는 보상을 얻어 킬보다는 적게 골드가 얻게 됩니다.

그 외의 성장방법은 공격로를 방어하고 있는 포탑을 철거하여 보상을 얻거나 드래곤, 바론 등과 같은 오브젝트를 쳐치하여 골드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로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성장 격차를 벌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롤 성장의 핵심은 상대팀보다 우리팀이 더 레벨이 높고, 많은 아이템을 갖추고, 더 많은 이로운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각 공격로의 챔피언들끼리 미니언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라인전이라고 합니다.

성장을 위한 미니게임

협곡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강가에는 에픽몬스터(또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데, 이를 잡으면 보상으로 챔피언들에게

골드와 이로운 효과를 주는 미니게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상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종류에는 공허 유충, 전령, 드래곤, 아타칸, 바론이 있습니다.

포지션별 역할

롤에서 포지션이 나뉘게 된 것은 각 공격로와 정글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와 골드를 팀원들이 균일하게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각 공격로의 특성과 게임의 전체 흐름을 위해 각 포지션의 역할이 다릅니다.

탑 상단 공격로를 담당합니다. 위가 막혀 있는 탑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포지션의 챔피언과 주고 받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상대탑과의 결투가 중요합니다.

정글 정글을 담당합니다. 각 공격로에서 라인전을 할 때 다른 챔피언을 항상 만나지는 않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지체롭고 효율적으로 정글몬스터를 먹고 다른 공격로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제갈량 같은 교묘함이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미드 중앙 공격로를 담당합니다. 상대적으로 라인 길이가 짧아 많은 미니언을 사냥이 가능하여 다른 라인보다 빠

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 가면 탑이 있고 아래로 가면 바텀이 있고 정글에 개입도 위아래로 모두 가능해서 게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롤에서 사령관 같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유명한 페이커의 포지션이 바로 미드입니다.

원거리 딜러 ▶ 마치 과거 전투에서 궁수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사거리를 이용하여 스킬과 함께 강력한 공격으로 전투의 승리를 이끕니다. 하지만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는 성장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포터라는 포지션과 함께 하단 공격로에서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생존력이 낮아 수많은 공격에도 날렵하게 피하고 다시 공격하는 소양이 필요합니다.

서포터 ▶ 원거리 딜러의 성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더불어 유일하게 공격로에서 미니언을 통해 골드를 얻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성장보다는 다른 포지션의 챔피언들을 보조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어머니와 같은 포지션입니다.

LoL Esports

게임 제작사인 라이엇게임즈 주도 하에 매년 각 지역에서 열리는 국내대회와 전 세계에서 자웅을 겨루는 국외 리그가 존재합니다. 방송과 기술 3월호 잡지가 나올 때쯤 LCK CUP이 끝나 FST라는 국제대회로 큰 주목을 이끌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각 지역의 재패를 노리는 LCK 여정과 함께 MSI라는 중간고사를 치르는 국제대회를 거쳐 롤드컵이라는 Worlds로 꽃을 피웁니다. 롤드컵의 우수한 플레이어는 그 해의 모든 명예를 얻게 됩니다. 모든 LoL E-sports 대회는 유튜브, 치지직, SOOP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고 롤을 한 번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기존에 이미 즐기고 있다면 저랑 한 번 협곡에서 만나시죠! 필자의 아이디는 '든든한마상윤#KR1'입니다. 📺



지난해 Worlds를 재패한 페이커가 속한 T1 / 출처: 플리커

주요 대회 일정 정리

- 🏆 3월 : FST(First Stand Tournament)
- 🏆 4월~5월, 7월~8월 : LCK(LoL Champions Korea)
- 🏆 6월 : MSI(Mid-Season Invitational)
- 🏆 10월~11월 : 롤드컵(Worlds)

LEAGUE OF
LEGENDS